

시편: 88장 1~7절

후렴: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 기도 들어주소서)

주 내 구원의 하나님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나이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다가섰나이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 버렸나이다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않으시고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에 몰아넣고
어둠 속 심연 속에 두셨나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 기도 들어주소서)

성경말씀: 야고보서 1 장 23~25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중보기도:

교회가 여성, 장애인, 노약자,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며, 각처에서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이 기도할 때에는 '성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만 사랑을 받게 해 주세요.’

그것이 대원(大願)입니다.

사람이 큰 원을 품어 버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9월 2일 수요일

시편: 94장 1~11절

후렴: (주께서는 진실로 나의 산성이며 이 몸 숨길 바위가 되시리다)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빛으로 나타나 보이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며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설치게 하시며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게 하겠나이까
사악한 자들이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이 모두 다 거드름을 피우나이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유산을 곤고케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나이다

말하기를 주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중 우준한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시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라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않으시라
주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진실로 나의 산성이며 이 몸 숨길 바위가 되시리다)

성경말씀: 요한1서 4 장 9~12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중보기도:

모든 민족의 주님, 다양한 종교 전통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서로가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로 받아들이며 함께 잘 살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사람 됨됨이는 '참 나'와 '거짓 나'가 있는 것이니 영혼이 평안하면 '참된 나'요 영혼이 불안하면 '거짓 나'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128장

후렴: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손수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살리다)

복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복되여라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네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주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찌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찌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네가 손수 수고한 열매를 먹고 살리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3 장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중보기도: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내가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친구가 내 마음 알아주면 더 이상 영광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면 귀한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9월 4일 금요일

시편: 133장

후렴: (주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시니 영원토록 넘치는 생명 같아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위에 향기 짙은 기름 바름 같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그곳에 복을 내려 주시니 영원토록 넘치는 생명 같아라)

성경말씀: 로마서 13 장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중보기도:

학교, 학원 등 각종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배움을 받는 많은 학생이 전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학교 내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나쁜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우리가 사도직을 받았다.
하느님의 일꾼이 되었다.’ 할 때 어디 가든지 은혜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존경하고, 감싸고,
그냥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은총의 사건이지 자기 공로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빌립보서 2 장 9~11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중보기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지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섭리의 인도를 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것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안고 가겠습니까?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29절

후렴: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 가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 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맴피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성경말씀: 마태복음 18 장 18~20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물질만능주의에 몰두하기보다 영적인 생활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아! 하느님, 아! 예수 그리스도, 오! 성령, 참 좋으신 임이여! 하느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의 법칙을 그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품성을 진·선·미라고 합니다.

그 성품을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부릅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며 '좋아라!'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만물 속에서 그 우주의 법칙인 그리스도의 품성이 마음에 부딪치면 감격하여 '아하, 좋아라!' 하고 직관합니다.우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시편: 7장 1~9절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어
나를 위하여 깨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시편 37 장 1~6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중보기도:

국가 경영에 책임 맡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국민을 섬기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달은 스스로 빛이 없지만 태양의 반조로 빛이 있음 같이 사람 스스로는 절대 지혜와 빛이 없지만, 하느님의 덕을 받으면 지혜의 빛이 반조 됩니다.
마치 지구 스스로의 열은 부족하여도 태양의 열을 채워 받은 후에야 만물의 생명을 길러 낼 수 있음 같이, 사람 스스로의 지혜와 자비만으로는 부족하여도
성스러운 임의 지혜와 자비를 채받은 후에 제덕諸德이 완성되어 천지와 더불어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력의 덕과 타력의 덕을 합할 때 한 인격이 완성됩니다

시편: 14장

후렴: (주는 한결같이 의인들 곁에 계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네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노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않는도다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주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이여, 바라고 또 바라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한결같이 의인들 곁에 계시나이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 장 18~23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중보기도: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그저 예수님의 피를 우러러 보고 사모하는 마음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내 가슴에 한 방울만 떨어진다면 내 평생에 지은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내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으면 성인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밥을 해주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찬물을 떠주면 그 사람은 성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십시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시편: 7장 10~17절

후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악한 자들의 악행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은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시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그 칼을 갈으시리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리니
그 만든 살은 화전이라도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고
잔해와 궤환을 낳았도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 것 만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되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리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1~5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중보기도:

사랑이신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에 복을 내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즐거이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걱정과 수단보다 꿇어 엎드려 비시기 바랍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의 은은한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25장 12~22절

후렴: (주여,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니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내 눈이 항상 주를 앙망하리나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나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나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 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들이 모질게도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를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4 장 10~13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고도다

중보기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에 진리의 빛을 주시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든 피조물과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한다는 말은 용서란 말이 되고,
용서했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시편: 119장 161~168절

후렴: (제 영혼은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없이 사랑하나이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법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법을 지켰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제 영혼은 주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더없이 사랑하나이다)

성경말씀: 이사야 26 장 7~9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중보기도:

노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걸 사람은 늙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 권위를 갖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내가 죽어야 법에서 벗어나서 의(義)로와집니다.
내가 안 죽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므로,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34장 11~22절

후렴: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아이들아 모두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주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는 모름지기 악을 삼가하고
네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금하리로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를 따를찌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외치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악인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죽음을 당하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주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하시니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성경말씀: 빌립보서 3 장 10~14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중보기도:

교회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도들 각자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29. 순명

순명(順命)은
모든 덕의 어머니요
후견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거스르지 않을 때
비로소 순명(順命)의 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순명은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이끍니다.
순명(順命)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퇴보하게 하고,
돌덩이 같은 자아를 부수어,
그곳에 청빈과 정결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글 재편집)

시편: 76장

후렴: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8 장 21~22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중보기도:

모든 정치인이 정의와 참 지혜를 알고 올바른 일에 더 관심과 실천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나라와 모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 없이는 구제, 자비, 능력 다 행해도 자기 자랑 뿐이며,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밖에는 안 됩니다.
참 사랑, 귀한 사랑을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어지는 사랑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40장 9~17절

후렴: (주여,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크나 큰 모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알렸나이다
주는 내 입술 다물지 않았음을 잘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나이다

내가 크나 큰 모임에서 있을 때에
주의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죄악이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
내 감히 우러러볼 길 없어 내 마음 꺾이고 말았나이다
주여, 기필코 나를 구하여 주소서
어서 빨리 내게 오시어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소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주는 광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요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당신의 사랑과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성경말씀: 이사야 55 장 6~11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서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중보기도:

삶과 평안의 보금자리인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으로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 내
며, 삶의 모범으로 이웃과 세상을 변화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구원이란 결국 인격 완성에 있으므로 교회당이나 세례, 성찬, 의식이나 율법적인 제도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습니다.

장성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무한하심과 주 그리스도께 대한 순전한 사랑과 믿음만으로 이뤄질 것이며,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굳게 지켜주시는 것이므로 제도와 조직이 따로 필요치 않을뿐더러 도리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니 털지는 못합니다.

시편: 54장

후렴: (주여, 주의 어지신 이름을 찬미하리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이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며
주의 이름에 찬미하리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어지신 이름을 찬미하리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4 장 8~10

그러므로 성서에도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적인 역사에 성도들이 순간순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예 전심으로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 실천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시편: 55장 13~24절

후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

원수가 나를 모욕했다면 참아 주었을 것을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맞서 왔다면 비켜나 숨었을 것을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찌어다

그들이 사는 곳은 죄악의 소굴이라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를 대적하는 수많은 자들이 나를 치는 전쟁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속하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옥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놀려주소서
그들은 변치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손을 뻗치어 자기 동료를 치고 계약을 배반하였고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나이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니
네 짐과 걱정 모두를 주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으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만이 우리 주께 의지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도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0 장 14~15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그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가꿀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일어나 가자.’ 그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발자국을 딛고 따라가야 합니다.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도록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사랑 없이는 순명이 안 됩니다.
모든 의식과 계명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비밀을 알려 주십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57장

후렴: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리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그들 이는 창과 살이요
그들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소서
그들이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그들이 스스로 빠졌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든든하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찌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찌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대저 크신 주의 인자는 하늘에까지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을 흔들어서 나는 깨우리라 그리고 주를 찬양하리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8 장 11~13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중보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들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 뜻을 따라
복음전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달걀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체온이 와서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이지 달걀 자신이 어떻게 병아리가 되겠습니까?
원리 원칙이 있고 우주 법칙이 있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온기가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지 자기 의지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60장

후렴: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시고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어 갈라지게 하셨나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숙곳 골짜기를 척량하리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왕홀이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원수를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시고 응답하소서)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3 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살피며 모든
이에게 이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실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람에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사람 된 이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64장

후렴: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 나를 구하시고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칼 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 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히 음모를 꾸미니 그들은 누가 보리요 하나이다
그들은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이다

불의한 것을 속으로 꾸며내고
저들은 꾸민 것을 숨기나이다
저들 각자의 생각과 그 마음은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활을 쏘시리니
저들은 당장 상처를 입으리라
혀를 함부로 놀리다가 맞아 쓰러지면
보는 사람마다 다 머리를 내저으리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의인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 소망을 주께 두리다)

성경말씀: 이사야 65 장 17~19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중보기도:

인도자이신 주님, 가정 또는 사회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로하시고 살피 주시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약속한 평화입니다.
사도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내 평화를 네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참조)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마음과 뜻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몸이 평화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피와 살에 평화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부름을 받았고, 성소를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겠습니까? 전 인류에게 가장 없는 것이 평화이고, 인류의 가슴에 가장 모자라는 것도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소유하고, 평화를 얻어 전 인류에게 그 평화를 나누어 주라고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랑뿐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평안하지 사랑을 안주면 평화가 없습니다. 성소의 목적이 평화입니다.
그러려고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택하셨습니다.
평화의 사도, 평화의 일꾼, 평화의 종,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시편: 118장 19~29절

후렴: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 가서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주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 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주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는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비취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맴피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 날은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춤들을 추자)

성경말씀: 마태복음 20 장 16-17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고 또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고단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공동선이 실현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소화小花야! 너 비록 작고 풀 속에서 피어 풀 속에서 떨어질지라도 나는 네게 씨를 주지 않았느냐?
설령 저 찬란한 장미와 백합이 없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너 풀 속에 숨어있는 소화는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
이니라.
이것이 내 사랑이요, 내 은총이다.
기억해 두어라. 소화가 지고 난 다음 나는 많은 씨를 심도록 열매를 주었느니라.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시편: 119장 41~48절

후렴: (나는 항상 주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리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며
주의 인자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훼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으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함입니다

내가 주의 규례에 희망을 두나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항상 주의 율법을 영원토록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으니 자유롭게 걸으리다

주의 법을 왕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리다
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항상 주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리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9 장 9~13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금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희망이신 주님,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부활의 빛이 그들 가슴을 비추어주소서.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은 단지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깨달아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용기를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겸손한 그 마음이 곧 은총입니다.

그 겸손 속에 은총이 깃들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잉태된 탯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만물의 찌꺼기입니다.

마음속 깊이깊이 낮아질 때 저는 공허이요, 가난한 마음이요, 무^無이며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 겸손한 영 속에 평화의 영이신 예수님이 계시어서 그렇게 평안하여짐을 성모송을 외울 때에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드리는 고백, 김준호)

시편: 74장 13~23절

후렴: (주여, 돌이켜 살피소서, 그 옛날 주님께서 얻으신 백성이외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주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멧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토록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 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원수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를 항거하는 자의 우짖는 소리가 높아만 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돌이켜 살피소서, 그 옛날 주님께서 얻으신 백성이외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5 장 16-17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이들은 다 주께 오라고 불러 주셨나이다.
병고, 생활고, 인생의 직책과 의무감이 무거운 이는 누구나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소서.
아멘.
주님 사랑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75장

후렴: (나는 춤추며 기뻐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이 전파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해 둔 그 때가 되면
정한 시기에 정의로 심판하리라 하셨나이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시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라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찌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도 앓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않나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는 춤추며 기뻐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2 장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남의 죄보다 제 죄 살피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자기 형편은 자기가 곤란케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기가 불행하게 만든 것은 자기임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시편: 80장

후렴: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여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을 덮었나이다

그 그들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냇물이 강까지 미쳤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의 멧돼지로 하여금 휩쓸게 하시고
들짐승들이 뜯어먹게 하시나이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어, 포도밭을 찾아오시어 지켜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불을 지르고 그것을 베어낸 자들
진노하시는 주의 면전에서 죽어 없어지리다

주의 우편에 있는 자들 위에 주를 위해
굳세게 하신 그 사람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않으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만군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취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 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 주소서)

성경말씀: 레위기 19 장 34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가복음 1장 38절) 하고 순종하신 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미천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임의 가슴은 희생과 평화, 자비와 화목, 사랑의 광장이요, 어머니의 넓은 가슴이어야 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어머니의 심장이여! 능히 못하심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면
임은 능히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 사도가 아니어도 천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임은 사랑의 어머니가 되라고 예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베드로전서 1장 2절. 골로새서 3장 12~17절 참조).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시편: 22장 23~31절

후렴: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할지라)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찌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여
모두 다 그를 경외하리로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않으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하며 영원히 살찌어다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주의 것이요 주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라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은 살고
나의 후예는 주를 섬기리다
미래의 세대에게
주를 들어 말하리라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리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리니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할지라)

성경말씀: 사도행전 26 장 21~23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무식한 농부라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34장 11~22절

후렴: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아이들아 모두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주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는 모름지기 악을 삼가하고
네 입술을 거짓된 말에서 금하리로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그를 따를찌어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그들 부르짖음에 기울이도다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외치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리니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도다

악인은 그들이 행한 악으로 죽음을 당하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주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하시니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않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평화를 찾아서 뒤따라가라)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1 장 22~24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님, 공허이 없으면 색색이 있을 곳이 없고
무無가 없으면 유有가 있을 곳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있을 곳이 없고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죄인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주님, 왜 공은 우주를 먹고야 충만해지며 무는 만물을 먹고야 원만해지며,
사람은 사랑을 먹고야 행복해지며, 죄인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까?(요
한복음 6장 53~58절 참조)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76장

후렴: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21 장 28~32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의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기적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은 기적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못할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20장

후렴: (곤경 속에서 주는 나의 소리를 들어 주셨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는 나의 소리를 들어 주셨나이다
주여, 거짓된 입술에서 구하여 주소서
간교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너 간사한 혀야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을 더 받으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가련한 내 신세여 이 몸은 메섹의 나그네로 살고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구나
나는 화평을 원할찌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곤경 속에서 주는 나의 소리를 들어 주셨나이다)

성경말씀: 에스겔 11 장 19~20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마태복음 26장 39절) 라는 결심과 각오로
우리는 순간순간 생명을 내놓고 죽어야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훈련받습니다. 미사 시간에 그 사랑을 재현합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119장 137~144절

후렴: (주의 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치소서 내가 살리다)

주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나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원수가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이나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여 살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법은 영원히 의로우니 나를 깨우치소서 내가 살리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2 장 35~37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들리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접대하라신 주님! 곁에 앉았던 형제를 주님처럼 알고 접대해야겠습니다.
이 형제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나 다름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접대할 줄 모릅니다.

접대할 줄을 알려 주옵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시편: 94장 12~23절

후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그의 헛됨을 아시나이다)

주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에 벗어나게 하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다

주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 유산을 떠나지 않으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좇으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서서 죄악 행하는 자를 찰꼬
주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혼이 벌써 적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주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을 인하여 그들을 끊으시리니
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그의 헛됨을 아시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 장 9~10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신앙의 길은 사랑이요, 성령이요, 하느님께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일상생활을 같이하십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